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26
JULY 15 2022

발간년월 2022년 7월 15일(통권 제226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올해 상반기 러시아 국내 컨테이너 물량 5.1% 증가
-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 러시아 물류대란 논의
- 북한-러시아, 열차운행 재개 '예상'
- 중국의 러시아 산 석탄 수입 증가

전문가 칼럼

- 러시아-한국 간 경제불확실성의 비대칭적 충격-반응

공지사항

- 제7회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

주요 통계

- 2022년 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 EAEU 코드 기준 33, 34
-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 EAEU 코드 기준 33~36



주요 동향



올해 상반기 러시아 국내 컨테이너 물량 5.1% 증가

■ 상반기 러시아 국내에서 운송된 ‘공’ 컨은 125만 TEU, ‘적’컨은 220만 TEU였음

- 이 같은 수치에서 ‘공’ 컨테이너의 경우, 작년 대비 5.1% 증가했으며, ‘적’ 컨테이너는 1.9% 증가한 수치임
- 또한 올해 1~6월 기준으로 철도를 통한 컨테이너 물량은 약 319만 TEU로, 작년 대비 1.5% 증가했는데, ‘공’컨테이너의 경우, 작년 대비 5.1% 증가했으며, ‘적’컨테이너는 1.9% 늘어난 수치임

■ 화물 종류별 물동량을 기준으로 화학물질, 목재, 하드웨어, 종이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음

- 작년 동기 대비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22.5%나 감소했으며, 하드웨어, 산업재, 목재 또한 소폭 감소했음
- 반면, 곡물은 작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34.4%), 건설 자재(+16.6%), 기타 식품(+20.8%) 대폭 늘어났음
-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UU)에 수출하지 않기로 지난 3월 결정했으며, 그에 따라 러시아 내수 시장에 공급되는 곡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표. 2022년 1~6월 화물 종류별 물동량

(단위: 천 TEU, %)

화물 종류	물동량	증감
화학물질 및 나트륨	380	+1.8
목재	286	-2.5
산업재	204	-6.8
하드웨어	184.2	-8.2
종이	180	+2.7

기계 및 엔진	173.9	-3.4
철금속	116.3	-3.3
자동차 및 부품	111.4	-22.5
기타	90.3	+15.5
건설 자재	80.4	+16.6
비철금속	116.3	-3.3
화학 및 광물 비료	47.8	+1.9배
석유 및 석유제품	37.6	+3.1
비철금속 광석 및 유황 원료	18.9	+4.4
곡물	22.9	+34.4
수산물	17.3	+1.4배
고기 및 버터	13	+17
분쇄제품	5.8	+11.2
감자, 야채, 과일	5.8	-3.7
기타 식품	107.4	+20.8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발레리아 샤페로바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에서 러시아 물류대란 논의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8/96595/> (2022.7.13. 검색)

그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2022) 패널세션 '새로운 도전과제-새로운 물류'



자료: <https://seanews.ru/2022/06/22/ru-chto-tormozit-rossijskuju-logistiku-v-nyneshnih-realijah/>

■ 러시아 철강 홀딩스 노보스탈엠(Novostal-M) 이사장은 현재 러시아 물류 대란 원인에 대해 발표^{a)}

- 그는 러시아 국토면적이 너무 넓어서 물류에 있어 문제가 항상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물류에 있어 발생하는 도전과제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주장
- 노보스탈엠 이사장에 따르면, 물류의 정의가 현재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물류산업 종사자들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중량화물의 운송능력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화물 운행속도가 느린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 러시아는 인프라 부족으로 화물열차의 평균운행속도가 8km/h인 반면, 외국은 인프라 과잉으로 화물열차의 40~45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음
- 노보스탈엠 이사장은 러시아 경우에 44km/h까지 속도를 올릴 필요는 없으며, 15~20km/h 속도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보스탈렘, 러시아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자

- 현재 러시아가 직면한 물류 문제의 하나는 항만의 중량화물 운송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러시아 타만(Taman) 항만의 경우, 철도 인프라와 건화물 처리 시설 부재로 신규 화물 유치 및 처리 지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즉, 사라토프(Saratov) 주에서 화물을 싣고 크라스노다르(Krasnodar) 주에 있는 건화물 처리 시설에서 자동차에다가 화물을 적재하여 200대 차량이 매일 노보로시스크(Novosibirsk) 항으로 운송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또한 현재 유일하게 가능한 물류 루트임
- 이에 따라 노보스탈렘 이사장은 러시아 산업계가 교통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왔고 앞으로도 투자할 것이며, 현재 노보스탈렘 또한, 사라토프주에 내륙수운 항만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음
- 이 내륙수운 항만 건설 프로젝트에는 철도 및 차량 진입로와 같은 교통 인프라 시설 구축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노보스탈렘 이사장은 올해 9월 내륙수운 항만의 첫 번째 부두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언급했음
- 이 항만의 화물 처리능력은 최대 100만 톤이며, 주로 철강 자체 제품을 취급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노보스탈렘 이사장은 내륙수운 항만 건설 사업에 6억 루블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완공하려면 추가적으로 9억 루블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 러시아 통화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

- 이날 포럼에서는 또 화물 운송에 관한 문제 이외에도 현지 통화로 거래해야 할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현재 러시아의 경우 알바니아 레크, 서아프리카의 프랑, 콜롬비아 페소 등 25개 통화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고로프 아르쎴 러시아전문위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국제협력부
(egorov201548131@mail.ru)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 a) <https://seanews.ru/2022/06/22/ru-chto-tormozit-rossijskuju-logistiku-v-nyneshnih-realijah/>
(2022. 7. 13 .검색)

북한러시아, 열차 운행 재개 예상

그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



자료: 데일리NK, 2022년 6월 23일 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북한-러시아 열차 운행 중단

- 2020년 1월,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조치의 하나로 국경을 폐쇄한 후 러시아와의 열차 운행을 중단
- 그 이후 북한 당국은 러시아에서 근로자를 귀국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은 비자 만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서 계속 일하는 중
 - ※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97호 8항을 위반한 것인데, 결의안은 채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모든 회원국 내 외화벌이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환을 의무로 함.
 - ※ 유엔은 외화벌이 북한 노동자를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는 가운데, 이중 중국(5만 명)과 러시아(3만 명)에 80%가 있을 것으로 판단
-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벌목공이나 건설 노동자로 일함. 벌목 비수기인 지금은 거의 돈을 벌지 못하는 현황. 최근 러시아에 있는 많은 북한 노동자들은 산나물, 버섯, 약초를 수집하여 팔아 외화벌이를 지속하는 실정

■ 러시아 파견 근로자 연간 7,000 달러 당비 납부의무

- 북한 당국은 러시아 주재 북한 노동자들에게 당비 관련 지시를 내림. 노동자들에게 매달 정해진 날짜에 할당된 당비를 지불하도록 요구. 노동자들이 4개월 또는 그 이상 동안 지불을 하지 않으면 강제 송환할 것이라 위협
- 이러한 지시로 노동자들 사이에서 북-러 철도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 노동자들은 당국이 2022년 10월 이전, 즉 4개월 후에 열차 운행을 재개할 계획이기 때문에 송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측
- 또한, 북한 당국은 부분적으로 노동자들이 거주지 밖의 다른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함. 코로나19 우려로 러시아에 배치된 장교가 망명을 시도하다 적발되자 북한 당국은 노동자 이동 통제와 감시를 강화
- 그러나 북한은 노동자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이주하는 것에 한해 노동자에 대한 여행 통제를 조건부 완화.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함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은 다양한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임. 일부 북한 주민들도 지역 간 이동이 확대되어 북한 노동자들이 도망치거나 탈북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도 노동자 이동이 늘어나면 해외로 도망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당 자금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북한의 외화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
- 한편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연간 7,000 ~ 10,000 달러의 당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채수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9orchid7@kmi.re.kr/051-797-4790)

참고자료

a) <https://www.dailynk.com/english/north-korea-orders-workers-russia-pay-contributions-party/>
(2022.07.11. 검색)

중국의 러시아 산 석탄 수입 증가

그림. 러시아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의 광산에서 기차에 석탄을 적재하는 모습



자료: CNN BUSINESS, 2022년 5월 20일 자

■ 중국의 석탄 수요 증가

- 중국은 2020년에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지만, 작년 말 수백만 가구와 사업체들에 심각한 전력 부족이 닥치자 석탄 소비를 늘림. 리커창 총리는 중국 원난성 송전센터를 방문해 중국에서 다시 전력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막을 것이라 말함
- 시진핑 주석은 현재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집중. 코로나 봉쇄와 부동산업 침체가 경제의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석탄 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프라 투자와 건설 프로젝트를 우선시 함
- 2021년 중국 전력 생산량의 60%와 중국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6%가 석탄에서 발생. 중국 정부는 석탄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2023년 3월 30일 사이에 석탄에 대한 모든 수입 관세를 0으로 인하

■ 중국과 러시아 석탄 무역

- 지난 4월, G7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러시아 에너지에서 벗어나겠다고 약속. 유럽연합(EU)도 같은 시기 5차 제재조치로 러시아산 석탄 금지를 승인했고, 이는 8월부터 완전

히 발효할 예정

- 중국과 러시아의 석탄 무역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방 국가들이 전례 없는 제재로 러시아를 강타하기 시작한 직후 감소. 중국 은행들은 러시아 상품 구매에 대한 자금 조달을 꺼림. 그러나, 제재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자, 잠재 수요로 인한 구매가 급증
- S&P 'Comodials at Sea'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28일 동안 러시아 해상을 통한 중국 석탄 운송량은 620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급증. 지난 5월 러시아 해상의 중국 공급량도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550만 톤. 현재 러시아는 중국 석탄 수입의 19%를 차지해 중국 석탄 공급국 중 2위
- 또한, 러시아 석탄 구매자의 수가 줄자, 러시아에서 석탄을 구매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 수입업자들은 다른 원산지의 석탄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 석탄 수입이 가능해짐
- 중국 산업 데이터 제공업체 마이스틸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에 운송된 고급 러시아산 원료용 석탄은 톤당 2,710 위안(403달러). 이는 미국의 원료용 석탄이 472달러, 중국에서 채굴되는 석탄이 423달러인 것과 비교됨
- 중국이 러시아와 무역을 하는 것이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제스처일 뿐만 아니라, 중국 자신의 경제적 요구에 이익을 주는 현명한 조치라고 평가됨
- 프라나이 슈클라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부국장은 중국이 국내 석탄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부터 러시아산 석탄을 상당량 수입한다고 전함. 그는 중국 국내 석탄 수요 증가는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상승시켜 국제 석탄 가격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

채수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9orchid7@kmi.re.kr/051-797-4790)

참고자료

a)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china-continues-to-snap-up-russian-coal-at-steep-discounts/>(2022.07.11 검색)

b) <https://edition.cnn.com/2022/05/20/business/russia-china-coal-trade-intl-hnk/index.html>
(2022.07.11 검색)



러시아한국 간 경제 불확실성의 비대칭적 충격-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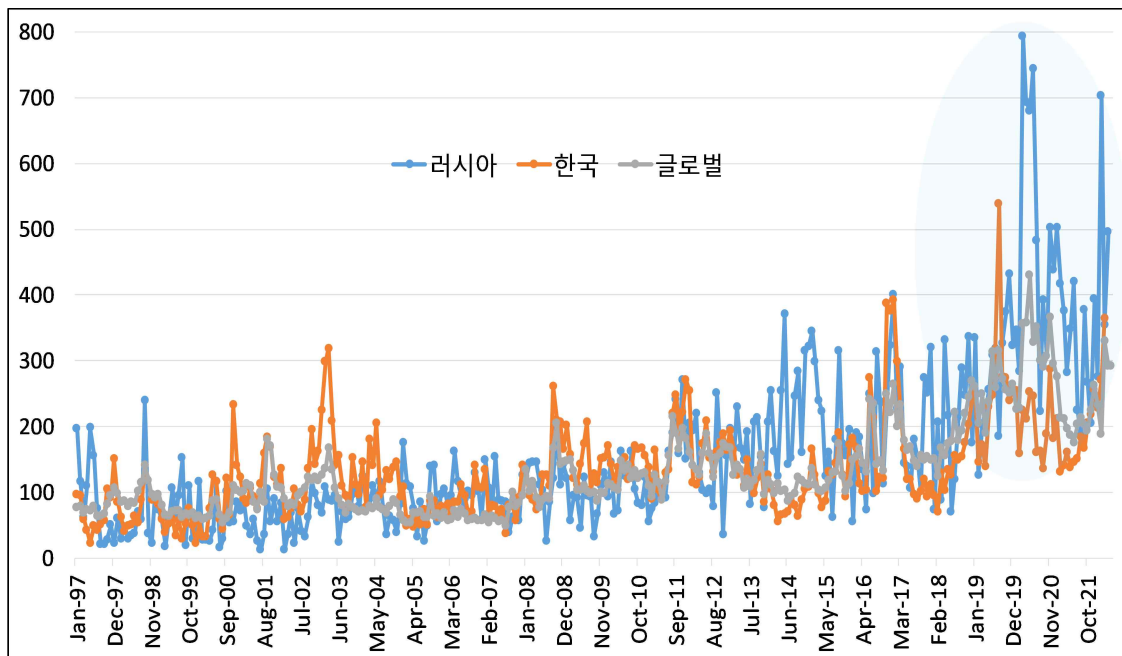
양오석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부교수

러시아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우리나라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가

러시아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수준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Baker, Bloom and Davis가 제공하고 있는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2011년 이전까지는 러시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한국이나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2011년 이후 러시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한국과 글로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반토막이 났고,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4월 현재 496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수준(29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림 1. 러시아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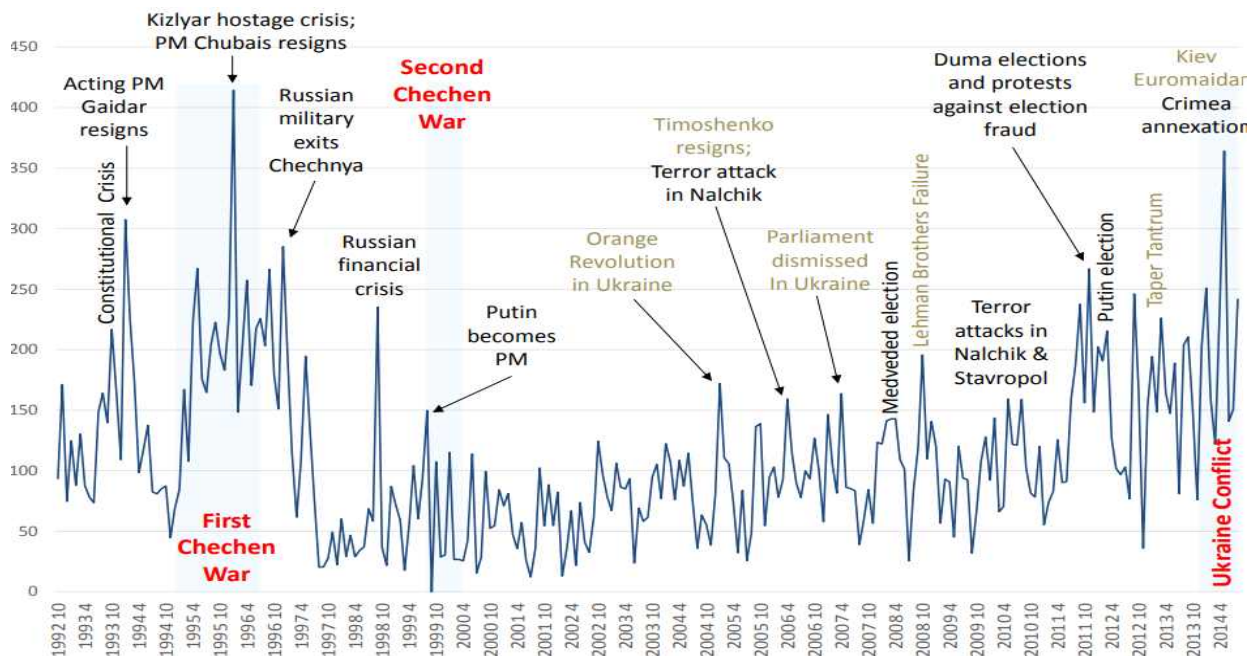


출처: http://www.policyuncertainty.com/russia_monthly.html(검색일: 2022년 7월 11일)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신용파생상품인 국제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지수나, 세계무역지수, 환노출, 주식시장 변동성, 외환시장 변동성, 기관투자자 리스크 지수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지표는 질문을 통한 응답 수치나, 설문자료를 통해 분산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동평균에 대한 비조건부 분산을 추정하거나, 시장효율성 이론을 바탕으로 ARCH 모형을 사용하여 조건부 분산을 추정하는 등 분산값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Baker, Bloom and Davis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컨트리 리포트나 일간지 기사 텍스트인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 단어 가운데 ‘불확실성’ 단어의 빈도수를 측정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가 첫 체첸 전쟁을 일으켰을 때 262(1996년 4월)를 기록했고, 두 번째 체첸 전쟁 당시에도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152(1999년 8월)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푸틴이 총리가 되었을 당시에는 109(1999년 10월)로 다소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 175(2005년 1월)로 치솟았고, 2014년 5월 우크라이나 갈등 사태 당시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371로 솟구쳤다. 그 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년 2월 25일)으로 러시아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703으로 급상승했다.

그림 2. 주요 역사적 사건과 러시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출처: http://www.policyuncertainty.com/russia_monthly.html(검색일: 2022년 7월 11일)

경제(정책) 불확실성 발생 요인과 전염효과

이러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대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외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불균형적 산업구조와 높은 민간부문 해외 자금 조달 비중 등으로 인해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소위 브릭스 국가(BRICS) 가운데 가장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바 있다. 문제는 특정 국가의 경제(정책)불확실성이 타 국가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학계와 실무계는 ‘전염효과(Contagion Effect)’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 전염효과란 본래 개인이 집단에 동화되는 군중심리를 설명하는 사회심리학 용어로 지금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한 리스크 요인이 무역, 주식시장, 경제관계 등의 영역에서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묘사하는 기술용어이다(임병학, 2012; 김정수, 이경희, 2012). 위구나 리스크 요인이 전염되는 모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어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모습을 통해 실물경제에서 발생한 불안 요인이 금융경제로 전염되어 글로벌 경제가 망가지는 관계를 우리는 지켜본 경험이 있다. 그 정도에 경악을 한 우리는 마치 몸살 병이 전파되는 것처럼 ‘전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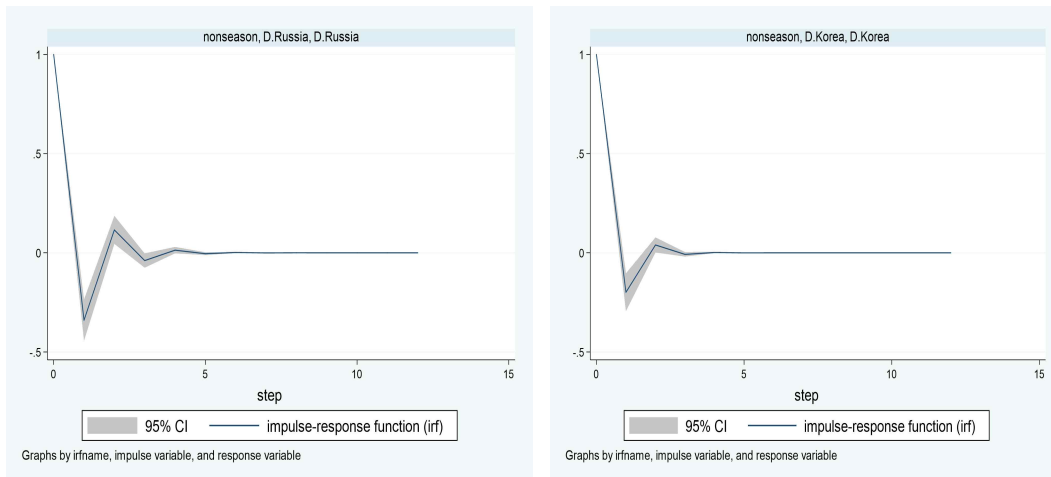
러시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영향력 지속성이 우리나라보다 긴 편

국가간 경제(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충격반응 함수(IRF: Impulse Response Function)를 사용하였다. 충격반응 함수는 벡터자기회귀(VAR: Vector Autoregressive) 모형에 준거한 방법으로 종속변수의 과거값이 현재값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고찰하는 동적모형의 형태를 내포한다. 충격반응 함수를 통해 특정한 내생변수가 t 시점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자신은 물론 다른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정한 내생변수의 현재값과 미래값이 갖는 오차항 중 하나에 대해 1의 표준편차 충격(one standard deviation shock)에 따른 효과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이 충격에 따라 다른 내생변수들이 보여주는 반응과 이 반응이 지속되는 시간 및 경로를 고찰하게 된다.

러시아와 타 국가 간 경제(정책) 불확실성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2021년 1월 기간 동안 진행된 러시아와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및 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흐름을 비교해 보았다. 고찰 방식은 러시아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중국, 콜롬비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미국, 스웨덴, 멕시코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ARIMA 모형 추정으로 IRF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영향을 미치는 시기 구분을 위해 12분기(3년)로 추정하였고, $step=0$ 은 t 시점, $step=1$ 은 $t+1$ 시점의 IRF 값을 보여준다.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고찰한 결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경제(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충격이 우리나라에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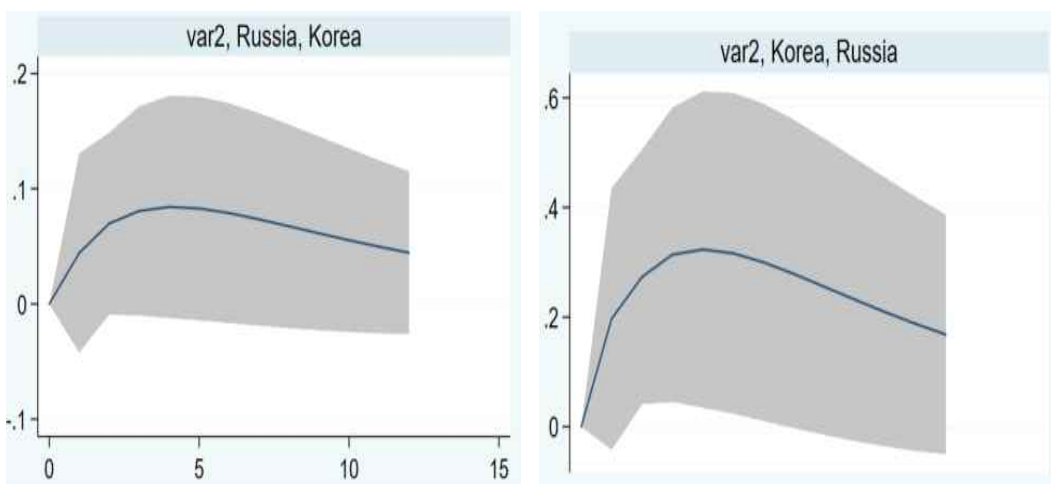
한 충격보다 더 오랫동안 타 국가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의 경우 step=0(t 시점)에서 발생한 경제(정책) 불확실성 충격이 5분기까지 영향이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충격은 3분기까지 지속된 후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의 영향력: 러시아(좌) & 한국(우)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유럽과 아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

그림 4. 경제(정책)불확실성 충격-반응: 러시아 → 한국(좌) & 한국 → 러시아(우)



한편 러시아 경제(정책) 불확실성 수준이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대륙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중남미 신흥국 지역에 대해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충격 폭이 큰 반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충격 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 경제(정책) 불확실성의 충격과 반응 관계는 양방향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미친 경제(정책)불확실성에 따른 충격의 정도가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력보다 약 두 배 이상인 것으로 고찰되었다. 다행인 것은 두 국가 간 경제(정책)불확실성이 보여주는 상호 영향력의 크기(설명력)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역상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에 큰 의미 부여

러시아는 브릭스 국가들 가운데 떠오르는 신흥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투자 및 경제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다. 수교 30년을 맞았던 2020년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 교역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약 17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21).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3번째 수출대상국이자, 9번째 수입대상국인 러시아는 전체적으로 12번째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경제(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나라 경제정책 수립 및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러시아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가가 글로벌 무역과 우리나라 경제를 타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무역과 공급망 채널이 큰 충격을 입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러시아산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지불 통화로 러시아 루블화를 고집하는 푸틴 대통령의 조치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와 달리 상당 수준 회복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대응 조치는 상당히 시장의 원리를 자극하는 듯하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러시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대신 정치적·경제적 사건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으로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 중단하는 조치를 통해 강수를 두고 있는 푸틴의 강경대응으로 향후 러시아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긍정적으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과연 경제(정책) 불확실성은 시장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산출물일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학에 의해 조정되는 장난감일지 궁금해진다.



공지 사항



제7회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공고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22년 6월 28일~7월 25일 (4주)
- 모집대상** ▶ ① 우리나라 국적의 대학원생(석·박사과정 재학생·휴학생 포함, 수료생의 경우 수료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② 학부졸업예정자(23년 2월 내 학부 졸업예정자)
③ 학부 졸업자(졸업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 모집인원** ▶ 20명 내외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① (필수) 참가 신청서 1부(붙임 양식1)
② (필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붙임 양식 2)
③ (필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수료/휴학 증명서 1부
④ (필수)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3)
⑤ (선택) 영어 성적증명서
* 영어 성적증명서가 없을 경우, 아학연수 또는 유학 증명서 등 아학(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제출 가능
⑥ (선택) 북극아카데미 수료증 1부 (해당사항 있을시 제출)
* ⑤ ⑥ 해당할 경우 제출, 제출시 무대

프로그램 개요

주 차	약 18주차
운영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난 이 도	중고급
분 야	극지(남,북극) 정책,거버넌스, 산업, 과학,국제협력 등
언 어	한국어 / 영어
코스구성	① 온라인 강좌 (북극정책/북극과학/남극정책/남극과학/극지산업 분야) ② 글로벌 북극 MOOC 프로그램 (4주 과정) ③ 학생-대학교수간 그룹 멘토제 운영 ④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극지 기관 견학 4회 ⑤ 극지 교육 내용 기반 성과 과제물 작성

특전 및 편의사항

- ▶ 수료증수여
 - ▶ 우수수료생 1인 차년도 '북극서를 총회(10월, 아이슬란드) 참석 기회 제공
 - ▶ 우수자 최종 과제물(논문) 국내 등재학술지에 게재 추진
 - ▶ 극지 관련 논문 작성 시 논문 게재료 및 심사비 지원(사후지원)
 - ▶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교통비, 식비 등) 지원
- * 극지 연구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시행 시 우수 수료생 최우선 인턴십 기회 제공

해양수산부 2022년도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공고 참조

일 시: 2022년 8월 25일~12월 9일 (약 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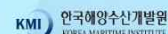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선 발 방 법 ▶ 서류전형 * 이메일로 서류가 있을 경우 무효처리, 최종 선정자에게 개별 연락

담 당 자 ▶ KM 북방-극지전략연구실 유지원 연구원

T 051) 797-4765 **E-mail** weekly_kmi@kmi.re.kr





주요 통계



표. 2022년 5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1/2022 증감율**
극동지역	13.1(-4.6%)	5.6(+0.3%)	18.7	-2.9%
북극해	2.9(-7.0%)	5.9(+10.0%)	8.8	+5.2%
발트해	8.7(-15.3%)	12.8(+13.8%)	21.5	+0.3%
아조프-흑해	9.2(+1.5%)	12.8(+1.3%)	22	+1.4%
카스피해	0.1(-17.8%)	0.4(-38.7%)	0.5	-31.1%
합계	34(-6.3%)	37.5(+6.0%)	71.5	+0%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29470/> (2022.6.25.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30680/> (2022.6.25. 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입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천 달러	톤
33	에센셜 오일, 향수, 화장품, 화장실 제품	10	01-중앙연방관구	17000 - 블라디미르주	8.18	0.03
				20000 - 보로네시주	8.74	0.13
				29000 - 칼루가주	38.96	3.2
				45000 - 모스크바시	11777.63	593.04
				46000 - 모스크바주	204.98	9.27
				70000 - 톨라주	164.97	20.55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0.04	0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637.73	262.72
				41000 - 레닌그라드주	13.06	0.52
				49000 - 노브고로드주	5.77	0.09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90.37	16.44
				60000 - 로스토프주	6.51	0.25
			04-볼가연방관구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128.47	0.03
				92000 - 타타르스탄	354.24	79.47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1565.97	82.18
			06-시베리아연방관구	25000 - 이르쿠츠크주	54.74	3.35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99.57	12.51
				52000 - 옴스크주	117.03	14.16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972.78	480.72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223.78	43.23
				64000 - 사할린주	776.5	137.28
				81000 - 부랴티아공화국	0.32	0.12
		11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11068.16	699.75

				17000 - 블라디미르주	3.07	0.01
				46000 - 모스크바주	241.8	23.04
				29000 - 칼루가주	89	11.11
				70000 - 톨라주	175.64	27.99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468.35	293.07
				49000 - 노브고로드주	10.78	0.15
		03-남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0.38	0.03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33.62	0.35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106.51	24.28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158.58	0.04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737.47	34.98
		06-시베리아연방관구		52000 - 옴스크주	97.74	14.37
				01000 - 알타이변강주	26.64	0.32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21.43	1.1
		07-극동연방관구		81000 - 부랴티야 공화국	106.05	15.07
				64000 - 사할린주	1137.82	143.46
				10000 - 아무르주	25.73	4.57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291.58	56.88
				05000 - 연해주	2704.02	648.72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9965.87	567.05
				29000 - 칼루가주	34.15	3.8
				46000 - 모스크바주	611.72	25.75

34	비누, 유기 계면활성제, 세제, 윤활제, 인조 및 조제 왁스, 세척 및 광택 화합물, 양초 및 동종 품목, 모델링용 페이스트, 고무찰흙, "치과용 기본 왁스" 및 치과용 왁스	10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0.3	0.02
				49000 - 노브고로드주	4.25	0.08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989.96	71.05
			03-남부연방관구	03000 -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39.32	3.79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9.6	0.72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267.07	0.07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160.22	5.9
				71000 - 튜멘주	4.34	0.01
			06-시베리아연방관구	52000 - 옴스크주	38.06	6.11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28.16	6.4
				25000 - 이르쿠츠크주	5.67	0.9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942.45	514.6
				10000 - 아무르주	12.81	1.92
				08000 - 하바롭스크변강주	103.28	23.41
				64000 - 사할린주	847.26	114.69
34	비누, 유기 계면활성제, 세제, 윤활제, 인조 및 조제 왁스, 세척 및 광택 화합물, 양초 및 동종 품목, 모델링용 페이스트, 고무찰흙, "치과용 기본 왁스" 및 치과용 왁스	10	01-중앙연방관구	29000 - 칼루가주	55.3	8.46
				45000 - 모스크바시	1149.1	228.62
				70000 - 톨라주	0.65	0.08
				46000 - 모스크바주	195.39	101.75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28.98	27.8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77.07	77.04
			03-남부연방관구	18000 - 볼고그라드주	70.09	0.55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17.11	2.56
			05-우랄연방관구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89.66	6.35
				75000 - 첼랴빈스크주	6.94	0.63
34	비누, 유기 계면활성제, 세제, 윤활제, 인조 및 조제 왁스, 세척 및 광택 화합물, 양초 및 동종 품목, 모델링용 페이스트, 고무찰흙, "치과용 기본 왁스" 및 치과용 왁스	10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63.39	5.02
				52000 - 옴스크주	15.51	11.9

				25000 - 이르쿠츠크주	4.87	0.7
			07-극동연방관구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58.83	24.11
				64000 - 사할린주	111.84	45.57
				05000 - 연해주	1666.7	777.56
		11	01-중앙연방관구	68000 - 탐보프주	10.56	4
				45000 - 모스크바시	1645.79	350.02
				46000 - 모스크바주	144.93	63.02
				29000 - 칼루가주	78.39	11.71
			02-북서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20.12	10.4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38.47	45.64
			03-남부연방관구	60000 - 로스토프주	54.45	11.93
			05-우랄연방관구	75000 - 첼랴빈스크주	1.97	0.06
				65000 - 스베르들롭스크주	15.62	1.28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22	0.02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38.04	11.93
				05000 - 연해주	944.81	394.88
				08000 - 하바롭스크 변경주	129.09	49.92
				10000 - 아무르주	9.61	2.83
				81000 - 부랴티야공화국	13.66	1.92
				64000 - 사할린주	180.68	80.31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 모스크바시	984.45	306.16
				46000 - 모스크바주	162.82	63
				29000 - 칼루가주	64.29	8.94
				68000 - 탐보프주	20.7	8
				61000 - 라잔주	1.08	0.21
				70000 - 툴라주	106.33	18
			02-북서연방관구	27000 - 칼리닌그라드주	23.43	21.3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187.81	522.91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7.17	0.72
			25000 - 이르쿠츠크주	1.96	0.25
		07-극동연방관구	30000 - 캄차트카 변경주	0.1	0
			64000 - 사할린주	18.7	10.98
			10000 - 아무르주	49.95	24.09
			08000 - 하바롭스크변강주	175.09	101.12
		08-북카프카즈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1106.15	462.9
			07000 - 스타브로폴스크변강주	2.87	0.1

* 주: EAEU 코드 33, 34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7.16. 검색)

표. 2021년 4분기 러시아 對 한국 수출 품목* 및 규모

EAEU 코드	품목	월	지역		규모	
			(코드) 연방관구	(코드) 주/시	천 달러	톤
33	에센셜 오일, 향수, 화장품, 화장실 제품	11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19	0.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7.2	0.34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0.14	0.01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2.47	0.17
34	비누, 유기 계면활성제, 세제, 윤활제, 인조 및 조제 왁스, 세척 및 광택 화합물, 양초 및 동종 품목, 모델링용 페이스트, 고무찰흙, "치과용 기본 왁스" 및 치과용 왁스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0.13	0
			04-볼가연방관구	36000 - 사마라주	0.06	0
		11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3.65	0.17
		12	04-볼가연방관구	22000 - 니즈니노브고로드주	1.38	0.03
			04-볼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1.58	0.43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3.88	0.02
			07-극동연방관구	64000 - 사할린주	0.13	0
35	알부민 물질, 변형 녹말, 접착제, 효소	10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0.22	0.01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0.01	0
			02-북서연방관구	41000 - 레닌그라드주	3.91	0.12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0.38	0
36	기타 화학 제품	10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6.9	0
			06-시베리아연방관구	95000 - 하카스공화국	38.79	179.55
		11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27.88	0.01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102.65	0.1
			06-시베리아연방관구	95000 - 하카스공화국	39.1	179.55
		12	01-중앙연방관구	45000 -모스크바시	260.14	115.09
			01-중앙연방관구	46000 - 모스크바주	27	0.08
			02-북서연방관구	4000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7.03	0.12

			04-불가연방관구	92000 - 타타르스탄	10.98	1.51
			06-시베리아연방관구	50000 - 노보시비르스크주	8.01	0.01
			06-시베리아연방관구	95000 - 하카스공화국	38.87	179.55
			07-극동연방관구	05000 - 연해주	35.39	63.2

* 주: EAEU 코드 33~36

김엄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참고자료

a) <http://stat.customs.gov.ru/analysis>(2022.6.29.검색)